

카트린 말라부는 누구인가?

: 가소성의 철학

1. 경력

1959년 6월 18일 알제리의 시디 벨 압베스(Sidi Bel Abbès) 시에서 태어났다.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년)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가족은 프랑스 본국으로 귀환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알제리’가 가져올 기억과 알력의 복잡성에 대해 가족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는 잃어버린 낙원의 신화를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명백한 무엇인가.” “태어난 고향을 갖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말하자면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1975년 프랑스 중부 리모주시의 게이-뤼삭 고등학교(Lyceé Gay-Lussac) 3학년 때 철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다. 교사 모니크 니구에(Monique Nigues)에 의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배우고, 만족스럽지 않은 지방의 소도시를 상상상의 지리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다.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철학에 의해서 떠나고 싶은 욕망을 얻는다), 은유적인 의미에서(철학자의 저작을 독해함으로써 지적인 지리를 개척한다) 바꾸는 방법을 배운다.”

1977년 리모주를 떠나 파리로 이전하고, 앙리4세 고등학교 준비학급에 입학한다. “참으로 훌륭한 교사 **Pierre Jacerme** 밑에서 헤겔과 하이데거를 배운다. Pierre Jacerme는 장 보프레 밑에서 하이데거를 배우고 앙리4세 고등학교 준비학급에서 오랜 세월 교편을 잡은 인물이다.

1979년 고등사범학교 폰트네이-오-로즈 캠퍼스(Ecole normale supérieure de Fontenay-aux-Roses)에 입학했다.

1982년 대학생 때 일본으로 여행. 애독서 뒤라스의 『히로시마 모나무르』를 따라 히로시마까지 여행한다. 폐소공포증을 앓던 말라부는 자유로 가는 출구를 찾는다는 생각을 하기 쉬웠지만 결정적인 경험을 한다. 어떤 절에서 수많은 불상으로 뒤덮인 벽에 감명 받고 “벽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광경을 보면서” 가소성 개념의 한 가지 착상을 얻는다.

1984년 DEA 과정(전문연구과정)에서도 헤겔 연구를 계속하려 하지만 지도교수 자크 부블레스로부터 “위대한 철학자” 데리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가 헤겔에 대해 쓴 것을 읽어야 할 것이다. 『조종』을.” 말라부는 당시 “데리다의 이름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10월, 카르티에라탕의 지베르 서점에서 『조종』을 손에 들고 충격을 받는다.

1986년 데리다와 만나 지도교수를 의뢰한다. “내 안의 무언가가, 가족 이외의 또 다른 ‘피에 누아르’와의 만남을 마침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 데리다에게서 배운 것은 “대담함, 왜 내가 제도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엄밀함, 나의 ‘프랑스성’의 탈중심화, 미국의 지적 생활로 가는 길이 열린 것, 국제 철학 콜레주 참여, 그

의 담화와 강연, 저작 —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이고 특이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고,¹⁾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의 마음을 기르는 것.”

- 1987년 “Images de l’ailleurs dans la philosophie politique de Rousseau” in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T. 177, No. 2, D’HÉRACLITE A KANT (AVRIL-JUIN 1987), pp. 161-167
- 1988년 “Photocopies de la conscience : Hegel et le droit d’auteur” *Les Cahiers de Fontenay*, no 51-52, pp. 89-100. ; “Temps littéraire et pensée du temps (Hegel—Proust)” in *Le Cahier*(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No. 5 (avril 1988), pp. 178-182. ; “Peindre la mer par l’autre sens: Proust et Elstir” in *L1567*, p.195-9.
- 1989-95년 국제철학콜레주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 프로그램명은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Qu’est-ce que lire?]”로, 헤겔에게서 독해의 물음을 기억이나 죽음의 문제계와 연관지어 탐구하는 것. 당시 원장은 리오타르로, 국제철학콜레주에서는 클로드 란츠만의 영화 『쇼아』에 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 1990년 잡지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의 데리다 특집호(*Derrida*, n°2, avril-juin, 1990)를 편집. ; “Économie de la violence, violence de l’économie (Derrida et Marx)” in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180, no.2. ; “Homage à Jacques Derrida,”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Etranger*, Vol. 43
- 1993년 “De Pascal à Heidegger” in *Critique* vol. 49, no557, pp. 716-724. ; “Les Temps de l’expérience: Le style d’Aristote,” in *Papiers du 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Paris, No. 22, 1-10. ; “Wozu das Leben sparen wollen, wo nichts mehr ist?” in *Ethik der Gabe: Denken nach Jacques Derrida*, Akademie Verlag.
- 1994년 12월 자크 데리다의 지도하에 써낸 박사논문 「헤겔의 미래 : 가소성, 시간성, 변증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심사위원회는 베르나르 부르주아가 심사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은 두니즈 스슈더그, 자크 데리다, 장-프랑수아 쿠르틴, 장-뤽 마리옹.
- 1995년 파리 제10대학 조교수로 취임. 2011년까지 재직.
- 1996년 『헤겔의 미래 : 가소성, 시간성, 변증법(*L’Avenir de Hegel: Plasticité, Temporalité, Dialectique*)』 (Vrin, 1996)[*The Future of Hegel: Plasticity, Temporality, and Dialectic*, Routledge, 2004, trans. Lisabeth During] 출판. ; “Who’s Afraid of Hegelian Wolves?,” in Paul Patton (ed.), *Deleuze: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1996): 114-138. ; “Négatifs de la dialectique: entre Hegel et le Hegel de Heidegger, Hyppolite, Koyré, Kojève,” in *Philosophie* No. 52 (Paris: Minuit, 1996), pp. 37-53[*La Chambre du milieu* (2009), pages 27 à 52에 재수록].
- 1998년 『헤겔의 미래』에 대한 데리다의 장대한 서평 「이별들의 시간 : 말라부(가 읽는) 헤겔(이 읽는) 하이데거」²⁾ 출간.

1)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 등을 참조. « Interview with Catherine Malabou », July 26, 2017. <http://figureground.org/interview-with-catherine-malabou/>. « Murée de l’être », *Vocation philosophique*, Bayard, 2004.

2) Jacques Derrida, “LE TEMPS DES ADIEUX Heidegger (lu par) Hegel (lu par) Malabou”,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T. 188, No. 1, HEGEL (JANVIER-MARS 1998), pp.3-47. <https://www.jstor.org/stable/41100605>

- 1999년 데리다와의 공저 『자크 데리다와 함께 여행하다 : 갓길(Voyager avec Jacques Derrida : La Contre-allée)』(with Jacques Derrida, La Quinzaine littéraire-Louis Vuitton, 1999)[*Counterpath: Traveling with Jacques Derrid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trans. David Wills]을 간행. 전 세계를 여행하는 데리다와의 왕복 서한과 인용 단편으로 이루어진, 철학과/의 여행에 관한 저작. 10월에 프랑스 투르코앙의 프레노바 현대예술국립스튜디오(Fresnoy-Studionational des arts contemporains)에서 “가소성” 심포지엄을 주최. 철학, 신경 생물학, 미술 전문가와의 협동 연구. ; “La métamorphose de constance : une lecture de Nietzsche et l’ombre de Dieu” in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401 - 418. ; “¿ Cómo no derivar? Creencia y denegación en Jacques Derrida” in *Daimon* N° 19.
- 2000년 『가소성(Plasticité)』(Éditions Léo Scheer, 2000) 간행. ; “Plastic Readings of Hegel,” *Bulletin of the Hegel Society of Great Britain* 41-42 (2000): 132-141. ; “The Future of Hegel: Plasticity, Temporality, Dialectic,” *Hypatia* 15 (2000): 196-220. ; “Un oeil au bord du discours”, *Études Phénoménologiques*, Nos 31-32, Vol. XVI, Louvain la Neuve, 209-22. ; “Plasticité Surprise,” in *Plasticité*, ed. by Catherine Malabou (Paris: Editions Léo Sheer).
- 2001년 “History and the Process of Mourning in Hegel and Freud,” *Radical Philosophy* 106 (2001): 15-20.
- 2002년 주디스 버틀러의 첫 프랑스어 번역서 『권력의 심적 삶』의 서문 집필.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의 심포지엄 “데리다/들뢰즈 : 정신분석, 영토성, 정치”에 데리다와 함께 초빙되어 「다형 형성은 유년기를 결코 도착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³⁾를 발표. 미국에서의 활동의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 “Une différence d’écart: Heidegger et Levi-Strauss” in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4/2002 (Tome 127), p. 403-416. ; “L’imprenable en question ou se prendre à mourir” in *Études françaises*, vol. 38, n° 1-2, p. 135-144. ; “Le corps du genre (sex/gender)” in *Textuel* no 42, pp. 45-54.
- 2003년 『하이데거 변환』, 『에크리튀르의 황혼녘의 가소성』으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 심사(Habilitation)에 합격. ; “Négativité dialectique et douleur transcendante” in *Archives de philosophie* 66:2. ; “Deux lectures de la politique du pòeme de Philippe Lacoue-Labarthe : L’insistance de la forme” in *Poésie* no105, pp. 154-159.
- 2004년 10월 데리다 사망. 추도문 “자크 데리다의 죽음” : “결코 ‘죽을 것’이 없는, 죽음 속에는 하나 이상의 죽음이 있다. 이 기묘한 긍정이야말로 틀림없이 자크 데리다의 사상 중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자크 데리다, 무한히 돌도 없는 인물, 어떻게 이를 다른 표현으로 언표할 수 있을까?” 이후 명시적으로 데리다의 사상에서 이반하기 시작해 뇌 과학과 철학의 횡단적 연구로 향한다. 『하이데거 변환(*Le Change Heidegger, du fantastique en philosophie*)』(Éditions Léo Scheer, 2004)[*The Heidegger Change: On the Fantastic in Philosophy*, SUNY Press, 2012], 『에크리튀르의 황혼녘의 가소성(*La Plasticité au soir de l’écriture*)』(Éditions

3) Catherine Malabou, “Polymorphism never will pervert childhood”, translated by Robert Rose. EDITED BY Gabriele Schwab, *Derrida, Deleuze, Psycho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https://www.jstor.org/stable/10.7312/schw14308.6>

- Léo Scheer, 2004)[*Plasticity at the Dusk of Writing: Dialectic, Destruction, Deconstr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trans. Carolyn Shread],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해야 할까?(*Que faire de notre cerveau?*)』(Bayard, 2004)[*What Should We Do With Our Brain?*, Fordham University Press, 2009, trans. Sebastian Rand]을 간행. ; “Pierre aime les horranges” in *Sens en tout sens: Autour des travaux de Jean-Luc Nancy*, Editions Galilée. ; “Prières” in *L’Herne Derrida*,
- 2005년 “The Form of an ‘I,’” in John D. Caputo & Michael J. Scanlon (eds.), *Augustine and Postmodernism: Confessions and Circumfess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127-137. ; “La plasticité en souffrance”, *Sociétés & Représentations* 2/2005 (n° 20), p. 31-39. ; “Heidegger critique du capitalisme : ou le destin de la métaphore économique” in *Poésie* no114, pp. 104-110. ; “Again: “the wounds of the Spirit heal, and leave no scars behind” in *Mosaic* 40:2.
- 2006년 “Another Possibility” in *Research in Phenomenology* 36 (2006): 115-129. ; “Les deux Moïse de Freud”, *Cliniques méditerranéennes* 2/2006 (no 74), p. 79-88. ; “Les régénérés : cellules souches, thérapie génique, clonage” in *Critique* vol. 62, no 709-10. ; “Vieillesse et plasticité psychique: Antinomie ou nouveau défi thérapeutique?” in *L’Encéphale* (Paris) 2006, 32, S628-S631. ; “Murée de l’être” in *La Vocation philosophique*, pp.105-132.
- 2007년 주디스 버틀러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객원 교수로서 체류. 첫 장 기 미국 체류. 『새로운 상처받은 자들 : 현대의 심적 외상을 생각하다(*Les Nouveaux Blessés: de Freud à la neurologie: penser les traumatismes contemporains*)』(Bayard, 2007)[*The New Wounded: From Neurosis to Brain Damage*, Fordham University Press, 2012]를 간행. ; “Plasticity and elasticity in Freud’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diacritics*, 37(4), pp. 78-86. ; “The End of Writing? Grammatology and Plasticity,” *The European Legacy: Toward New Paradigms* 12 (2007): 431-441[Changing Difference에 재수록]. ; “An Eye at the Edge of Discourse,” *Communication Theory* 17 (2007): 16-25. [Un oeil au bord du discours, 2000] ; “Polymorphism Never Will Pervert Childhood” in *Derrida, Deleuze, Psychoanalysis*, Edited by Gabriele Schwab, Columbia UP. ; Dialektik und Dekonstruktion: ein neues “Moment” in *Der französische Hegel*: pp. 155-162. ; “Pierre Loves Horrangers; Levinas-Sartre-Nancy an approach to the fantastic in philosophy” in *Umbr(a)*
- 2008년 “A Conversation with Catherine Malabou”, *Journal for Cultural and Religious Theory* 9 (2008): 1-13. ; “Addiction and Grace, Preface to Felix Ravaisson’s *Of Habit*”. In: Ravaisson, Felix , Carlisle, Clare and Sinclair, Mark, (eds.) *Of Habit*. London :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2009년 『사건사고의 존재론(*Ontologie de l’accident: Essai sur la plasticité destructrice*)』(Éditions Léo Scheer, 2009)[*The Ontology of the Accident: An Essay on Destructive Plasticity*, Polity Press, 2012]., 논문 모음집 『가운데 방 : 헤겔에서 신경과학까지(*La Chambre du milieu, de Hegel aux neurosciences*)』(Hermann 2009),⁴⁾ 『차이의 변환 : 여성적인 것과 철학적 물음(*Changer de différence, le féminin*

et la question philosophique』(Galilée 2009)[*Chang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1, trans. Carolyn Shread]을 간행. 의사 크자비에 엠마누엘리(Xavier Emmanuelli, 인도적 의료활동 “국경없는 의사회”, “SAMU 소셜” 설립자)와의 공동저서 『커다란 배제, (*La Grande Exclusion, l'urgence sociale, thérapie et symptômes*)』(Bayard: 2009) 간행. ; “How is subjectivity undergoing deconstruction today? Philosophy, auto-hetero-affection, and neurobiological emotion”. *Qui Parle*, 17(2), pp. 111-122. ; “Plasticity and Elasticity in Freud’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Parallax* 15:2 (2009): 41-52. ; “Swan lake: bleu comme les neurones”. In: Bernard, Christian and Davila, Thierry, (eds.) *Claude Leveque*. Paris, France : Flammarion. pp. 126-133. ; “L’éternel retour et le fantome de la difference”. In: Pornschlegel, Clemens and Stingelin, Martin, (eds.) *Nietzsche und Frankreich*. Berlin, Germany : Walter de Gruyter. ; “Bouche cousue: de l’homeostasie [With sealed lips. On homeostasis]”. In: Pontbriand, Chantal, (ed.) *Harun Farocki/Rodney Graham*. Paris, France : Blackjack editions. ; “El sentido de lo femenino: sobre la admiración y la diferencia sexual” in *Lectora*, 15: 281-299. ; “Un ull que voreja el discurs” in *L’Espill* N°. 32, p. 69-77. [Spanish. Un oeil au bord du discours, 2000] ; “Jean-Jacques Rousseau, le sexe primordial” « Le Nouvel Observateur » n°2334, du 30 juillet au 5 août 2009.

2010년 버틀러와의 공저한 논문 「내 신체여(Sois mon corps)」(with Judith Butler, Bayard, 2010) 출판.⁵⁾ ; with Clayton Crockett. “Plasticity and the Future of Philosophy and Theology” in *Political Theology* 11.1: 15-34. ; “The Eternal Return and the Phantom of Difference” in *Parrhesia* 10: 21-9 [“L’éternel retour et le fantome de la difference” 2009]. ; “Modification in being and time, or the form of difference”. *Graduate Faculty Philosophy Journal*, 31(2). ; “Trace psychique et trace synaptique parlent-elles la meme langue?” In: Magistretti , Pierre and Ansermet, Francois, (eds.) *Neurosciences et psychanalyse: une rencontre autour de la singularite*. Paris, France : Odile Jacob. pp. 51-72. ; “De la transparence cerebrale comme eclipse du temps”. In: Fleischer, Alain, (ed.) *Vitesses Limites*. Paris, France : Seuil. ; “Le destin social de la selection naturelle: comment choisir sans intention d’eliminer?” In: Prochiantz, Alain, (ed.) *Darwin: 200 ans*. Paris, France : Odile Jacob - College de France. pp. 227-242.

2011년 런던 킹스턴대학교 교수로 취임. ; ”You Be My Body for Me: Body, Shape, and Plasticity in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in *A Companion to Hegel* (Wiley-Blackwell 2011, eds. Houlgate and Baur). ; “Like a sleeping animal: philosophy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Inaesthetics* (2), pp. 79-89. ; “Souffrance cerebrale, souffrance psychique et plasticite”. *Etudes: revue de culture contemporaine*, 414(4), pp. 487-498. ; “Is confession the accomplishment of recognition? Rousseau and the unthought of religion in The Phenomenology Of Spirit”. In: Zizek, Slavoj , Crockett, Clayton and Davis, Creston, (eds.) *Hegel & the Infinite: Religion, Politics And Dialectic*. New York,

4) 이 책은 2017년에 제2판이 출판되는데, 이때 매우 많은 가필 수정이 이뤄졌다.

5) Judith Butler and Catherine Malabou, “You Be My Body for Me: Body, Shape and Plasticity in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Blackwell,

<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ZGVmYXVsdGRvbWFpbXkaWdpdGFsbWVkaWFhZXN0aGV0aWNzfGd4OjQyZWYyMGIxMTk5ZDYxNzY>

- U.S.A.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9-30. ; “Što učiniti sa svojim mozgom? Središnja moć u krizi” in Čemu, Vol.X No.20[Croatian translation of parts of *Que faire de notre cerveau?*, 2004의 크로아티아어 부분 번역본] ; ”The Possibility of the Worst” in *Umbr(a): The Worst*
- 2012년 *Métaphysique*, Editions Léo Scheer. ; *Ontology of the Accident: An Essay on Destructive Plasticity*. Polity Press. ; *The New Wounded: From Neurosis to Brain Damage*. Fordham University Press. ; *The Heidegger Change: On the Fantastic in Philosophy*. SUNY Press. ; “Plastikiyetle Felsefe ve Teolojinin Geleceği” with Clayton Crockett, in *Din Felsefesine Dair Okumalar II*, İz Yayıncılık. [‘Plasticity and the Future of Philosophy and Theology’, 2010의 터키어 번역] ; ”Post-Trauma: Towards a New Definition?” in *Telemorphosis: Theory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Vol. 1) edited by Tom Cohen. ; ”Separation, Death, the Thing, Freud, Lacan, and the Missed Encounter”, *Avello Journal* 1.2
- 2013년 에이드리언 존스톤 Adrian Johnston과의 공동저서 『자기와 감정적 삶 : 철학, 정신분석, 뇌과학(*Self and Emotional Life: Philosophy, Psychoanalysis, and Neuroscience*)』(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을 간행. ; ”Separation, death, the thing, Freud, Lacan, and the missed encounter”; *Public*, Volume 24, Number 48, December 2013, pp. 123-140(18). ; ”What is lost in the constitution of sexual identity?” *Verifiche: Rivista Trimestrale di Scienze Umane* 42 (1-3):61-74 (2013).
- 2014년 『내일 전에(*Avant demain. Épigenèse et rationalité*)』(PUF, 2014)[*Before Tomorrow: Epigenesis and Rationality*, Polity Press, 2016, trans. Carolyn Shread]를 간행.
- 2017년 버클리 캠퍼스 비교문학과 교수를 겸임하기 시작.
- 2018년 『지능의 변신(*Métamorphoses de l'intelligence*)』(PUF, 2018) 간행.
- 2019년 『시간(*Le temps*)』(Hatier, 2019) 출판.
- 2020년 『말소된 쾌락 : 클리토리스와 사유(*Le plaisir effacé: Clitoris et pensée*)』(Rivages, 2020)[*Pleasure Erased: The Clitoris Unthought*, Polity, 2022, trans. Carolyn Shread]를 간행. 2017년경부터 장기 연구 프로젝트 “철학과 아나키즘”을 계속.
- 2022년 말라부의 허가를 얻어 가소성에 관한 영어로 된 논문 모음집 『가소성 : 폭발의 약속(*Plasticity: The Promise of Explosion*)』(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2, ed. Tyler M. Williams) 출판.
- 2022년 『도둑이야! 아나키즘과 철학(*Au voleur! Anarchisme et philosophie*)』 (P.U.F., 2022)

2. ‘가소성’ 개념의 발견과 형성

Cf. « Plasticité », *Vocabulaire Européen des Philosophies*, dir. par Barbara Cassin, Le Seuil & Le Robert, Paris, 2004, pp.958-960.

1) 형태의 부여와 수용

plasticité / Plastizität(가소성) :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독일어와 프랑스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

그리스어 *plassein*(조형하다)을 어원으로 하는 두 개의 단어에서 파생

(1) 명사 *plastique/Plastik*(조소, 彫塑) : 형태나 모양의 형성 · 다듬기(예를 들어 조각)

(2) 형용사 plastique/plastisch(가소적인) : 형태나 모양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예를 들어 밀랍이나 진흙),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예를 들어 조형술이나 성형수술).

malleabilité/Bildsamkeit(가단성, 可鍛性) : 충격이나 압력으로 파손되지 않고 변형할 수 있는 고체의 성질(금속재료). 단조(鍛造)할 수 있는 성질. → 형태나 모양의 수용

formation/Einbildung, information/Durchbildung(형성 또는 형성체) :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

→ 형태의 부여 → ‘가소성’이 지닌 이중성 : 형태를 부여하는 것과 받는 것, 형태의 부여와 수용
교육이나 육성·양성(예 : 자녀의 적응 능력), 적성이나 진화(예 : 뇌의 가소성, 생물의 환경 적응력 [vertu plastique])

2) 가소성의 세 가지 의미

20세기에 plastique의 새로운 의미가 등장 :

1913년 이후 : 플라스틱(합성수지) 1962년 이후 : 플라스틱 폭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형태의 폭발과 소멸.
첫째와 둘째 의미(형태의 부여와 수용)와 셋째 의미(형태의 폭발)의 연관의 타당성?

3) 주체성의 핵

가소성 ≠ 견고함, 고정성, 경직성

≠ polymorphe(다형성), proteiforme(자유자재의 변환), Cf. 리오타르, 『쟁론Le Différend』

모든 타자를 흡수하고 전유하는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형성의 도중에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태(미래)에 열려 있는 자기.

4) 융통성 없는, 불복종의 주체성

“한번 형성되면 원래의 형태를 되찾을 수 없는 조각상의 대리석처럼 형태를 간직하는 것이 가소적이다. 그러므로 ‘가소적’이란 변형작용에 저항하면서 형태에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Est plastique ce qui gaide la forme, comme le marbre de la statue qui, une fois configuré, ne peut retrouver sa forme initiale. « Plastique» désigne donc ce qui cède à la forme tout en résistant à la déformation).”(『헤겔의 미래』, p.21.)

- 노엘 바하니안(Noëlle Vahanian) : “그녀는 헤겔에게서 자신의 철학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가소성 [plasticity, 可塑性] 개념을 차용합니다. 즉, 주체는 가소적이며(탄성이 없으며, 그 원래 형태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주체는 가단성malleable이 있지만, 폭발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말라부 : “... 제가 가소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헤겔에게서 가소성은 질료와 형

상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도 형상과 형상 자체의 상호작용, 즉 형상과 형상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은 주체가 가소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녀 또는 그가 형상을 받을 수 있고(수동성), 또 형상을 줄 수 있다(능동성)는 의미에서 가소적입니다. 저는 이런 주체의 존재 양식이 남성적인 것/여성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재현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흥미를 갖고 보여주려 하는 것은 이 형상과 형상 자체의 관계가 어떤 ‘차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체의 두 가지 존재양식은 서로 다르지 않지만, 그 중 하나는 스스로를 다른 하나로 변형시킵니다. 가소성과 더불어 우리는 미리 주어진 차이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변신·변모·형태변화metamorphosis의 과정에 직면합니다. 즉, 헤겔의 주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주체화’합니다 trans-subjects. 그 형상은 그 질료입니다.

아시다시피, 헤겔에 대한 들뢰즈의 통렬한 비판은 다음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변증법은 차이를 대체·전치하는supersede 논리라는 것이죠. 들뢰즈에 따르면, 모순으로 차이를 대체 sublation하면, 비변증법적인 차이적 관계를 말소하게 됩니다. 가소성에 대한 작업을 통해 저는 차이의 대체에 대한 또 다른 판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차이’가 주체의 두 가지 존재양식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데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차이의 부적절함을 젠더에 관한 이항론적 문제와 관련시키면, ‘성적 차이’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푸코로 향하고 싶습니다. 『주체의 해석학 : 콜레주 드프랑스 강의 1981-1982』⁶⁾에서, 푸코는 이른바 ‘관주체화 transsubjectivation’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214). 그것은 자기 내부의 궤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관주체화는 자신이 예전과는 달라질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공간a space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 내부의 자기 자신의 두 가지 형태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씁니다. “자기 주변의 공간을 비우고, 당신 주변의 모든 소리, 얼굴, 사람들에 휩쓸려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라. … 자기에서 자기로 이어지는 이 궤적에 온통 집중해야 한다. 자기와 자기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로의 자기의 현전presence에.”(222-23) 우리 내부에서의 여행으로 간주되는 이런 관주체화는 변형transformation의 산물입니다. 푸코는 그리스어 에토포이에인(ethopoicin)을 강조합니다. “Ethopoien은 에토스, 즉 개인의 존재 방식, 개인의 실존 양식을 만들고 생산하고 바꾸고 변형하는 것입니다.”(237)

그렇다면 자기와 그 자체 사이의 차이를 승화시키는sublate 일종의 변형, 즉 자기에서 작동하는 두 형태들 사이의 대립의 결과로서 새로운 자기를 창출하고 생산하는 일종의 변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이 관주체화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헤겔에게서 변증법을 ‘ethopoicin’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소적 주체는 그 존재방식을 변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소적 존재론은 당연히 젠더 자체의 가소성을 내포합니다.

… 저는 이 [가소성 plasticity] 개념을 헤겔에게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신현상학』 서문에

6) Michel Foucault,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New York: Picador, 2004. 괄호 안은 영어판 쪽수.

서 주체성을 정의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주체는 매끈하지도 않고 부드러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다. 주체는 이것들 사이에 있는 무엇입니다. 주체는 '가소적'입니다. 가소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질(matter)의 질을 뜻합니다만, 어떤 질이냐면, 유동적(fluid)인 동시에 저항하는(resisting) 질입니다. 일단 형태가 부여되면(형성되면), 물질은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일단 조각되면 대리석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소성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모든 종류의 영향에 열려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